



전북특별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전북특별법 개정법안 부처 반영활동 쟁점

도, 민주 안호영 의원 주최 산업·환경분야 간담회 개최

10·12일 농림·복지분야 정책 간담회 연달아 개최

전북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며 전북특별법 개정법률안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처 수용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세미나에 이어 이달 6일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주최,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부처 반영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완주 수소사업도시의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특화단지 조성·육성할 수 있는 특례를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적 선도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부산악권 자원을 활용한 신약관광특구 추진과제의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영향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권한을 도(道)로 이양하고,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설치해 지역 의견을 반영

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자원 관리 및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도의 특례 타당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해 깊이있는 검토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더욱 확장해나가고자 한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일에도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는 농림, 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회 부처, 전북도의 간담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 수원 도시재생현장 답사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윤영숙 의원)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 특례시를 방문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수원특례시 행궁동 어울림센터에서 이루어진 세미나에 참석하여 안성현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드림사업에 대한 설명과 현행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안성현 팀장은 "광역차원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통해 정부주도 도시재생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쇠퇴원인에 따른 다양한 재생사업유형과 지원방법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문제

해결이 아닌 사업의 틀에만 맞추다보니 각종 부작용은 물론 재생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경기도는 사전준비단계, 사업추진단계, 사후관리단계까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지역이 원하는 사업비 규모로 자유롭게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적 시설중심보다는 주민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지난 5~8일 양일간 세미나를 시작으로 수원특례시 행궁동 도시재생 대상지 일일 및 수원회성, 음식문화거리, 역사문화 관광시설 체험 등 도시 활성화 요소들을 직접 체험했다. /김재훈 기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잼버리 준비 가장 중요”

김관영 도지사, “도민 열망·뜻결집, 최선 다하자” 국가예산 기재부 심의·재난안전예산 선제 대응도

김관영 전북도 지사가 6일 간부 회의에서 7월 한 달 가장 중요한 것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와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 러시가 계속되고 있고, 새만금 투자 진흥지구 지정 등 제도적 지원까지 확충됐다”면서, “이달 결정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가 도민의 열망과 뜻을 결집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잼버리 기간 내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한다는 민간의 각오로 긴장감 있게 행사를 준비하자”고 독려했다.

또한 김 지사는 “기재부 예산안 심의가 당초 3일에서 16일로 연기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시장·군수에게도 진행상황을 확실히 공유해서 도와 시군이 국가예산 확보에 견고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가 2024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므로 재난안전 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

안전시스템 구현 등 예측·예방 중심의 365 안전한 전북 구축 전략을 추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시대 공약과 정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대응하고 준비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하반기 도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설명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강화해 “도정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덧붙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달라지는 제도·시책 186건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내년도 신규시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불가피한 택시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방안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실적 달성을 강조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하는 우리도 차원의 대책과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김재훈 기자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빨리 실현돼야 할 과제”

전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태권도시를 만들려는 무주군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도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하루속히 실현돼야 할 과제이며 태권도 단체가 본부를 무주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6일 진안군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이태양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기본계획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태양 무주군의회 의장은 정부가 국기 태권도를 적극 육성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을 제정하고 태권도원을 무주군에 설립했지만 인재양성 체계 구축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군이 추진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태권도 인재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물론 태권도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마무리와 기본계획 예산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양 의장은 또한 무주군이 태권시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수의 태권도 단체가 본부를 무주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태권도 인재양성과 사무에 필요한 최적의 장소가 무주군에 이미 있다. 태권도원은 태권도 단체가 들어가기 최

적의 장소이며 태권모험에 의거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기도 수월하다. 따라서 세계태권도연맹이나 국기인 등이 각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태권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태권도 단체의 무주군 집적화는 국기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군산시의회 상임위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사진)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보조금 등 지원, 지정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실태조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등을 규정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7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박성민 위원장 차남준 부위원장

고창군의회 예결특위 구성 완료

고창군의회의(의장 임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 둘째 날인 6일, 위원장에 박성만 의원, 부위원장에 차남준 의원을 선출했다.

새롭게 선출된 박성만 위원장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의 쓰임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서민을 위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예결위원들과 면밀히 살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차남준 부위원장은 “집행된 결산 흐름을 군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고창군 재정 운영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5일 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차남준 의원, 조규철 의원, 이경신 의원, 박성만 의원, 임종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조민규 의원, 최인규 의원, 오세환 의원, 이선덕 의원 이상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선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